

■ 탈식민주의 입문서 - 엔리케 두셀의 『1492년. 타자의 은닉』

- Enrique Dussel, 1492, *El encubrimiento del Otro. Hacia el mito del origen de la modernidad*, La Paz: Plural Editores, 1994.

박 정 원



이 책은 해방 신학자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엔리케 두셀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 오백주년이 되기 얼마 전인 199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행한 강연문을 책으로 엮어 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도 이제 학문적 유행의 뒤안으로 사라져가는 즈음, 다시 근대를 논하는 이 책에 대해서, 특히 라틴아메리카 맥락을 탐구한 그의 저작을 지금 한국에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대라는 기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라틴아메리카라는 거울을 이용해 왔다. 한국이 닮아서는 안 될 근대의 실패 모델로서 말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라틴아메리카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역사적 맥락에서 근대가 본질적으로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다. 근대라는 서구 중심의 세계에서 이를 따라가는 ‘타자’로서의 의식적/무의식적인 자각 말이다. 이 책은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타자’를 너머서서 보다 넓은 의미의 ‘타자성’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두셀은 근대라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식민의 역사를 인식론적·철학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논의를 전개하여 근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재정립하려 시도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경우, 근대적 이성의 과학적·합리적이라는 성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두셀은 이성 자체가 서구에 의해 기획되고 재생산된 또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신화는 식민화 과정에서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고 타자화를 내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저자는 1492년이 근대가 탄생한 해이자 근대라는 신화의 기원이 된 해라고 주장한다. 발견하고, 정복하고 식민화하는 ‘자아’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했으며, 이 타자를 정의해가면서 ‘자아’와 ‘근대’가 재정립된다. 이런 순환적 과정을 통해 서구적 자아는 중심으로 비서구인 타자들은 근대의 주변부로 전락한다.

첫째 장에서 두셀은 ‘발견’과 ‘식민화’의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따라 접근한다. 두셀은 서구가 이전의 역사에서는 결코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한다. 그러나 1492년은 타자를 구성하는 기원적인 경험을 서구에게 제공한 해로서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해 나간다. 서구와 유럽을 ‘문명’과 ‘근대’의 세계로 자기 규정하는 동시에, 비서구에는 역사의 단계라는 잣대를 들이댄다. 비서구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미발달된 원시의 땅, 야만의 땅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서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전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모든 진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실질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민화의 으뜸 수단은 폭력의 행사였다. 그 과정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형성되며 원주민들의 문화와 생활 세계는 파괴되어 갔다. 원주민 노동력은 구대륙의 금과 은 그리고 자본 축적을

위해 착취되지만, 그 희생과 죽음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두셀은 이러한 폭력의 독점화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로 ‘타자성’의 주입을 들고 있다. 서구는 과거의 그리스·로마 이미지를 재전유하고, 기독교 문화와 성숙된 문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원주민들은 비이성적인 존재로 부각시켰다. 이렇게 이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폭력은 사실 이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렇듯 두셀의 시각에서 보면 아메리카라는 타자의 ‘발견’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타자를 통해 자신을 구축하고, 자신의 세계모니를 강화시키기 위해 타자를 억압한 것이 1492년 이후 서구 역사의 실체인 셈이다. 따라서 그는 평등한 위치에서 두 세계의 만남을 연상시키는 혼종성(hybridity), 제설혼합주의(syncretism) 등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타자의 발견(des-cubrimiento)이라는 서구의 관점을 거부하고, 타자의 은닉(en-cubrimiento)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주장한다.

둘째 장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식민화와 근대화의 과정의 탈신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인문주의자 히네스 데 세폴베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곰도 원숭이도 아니지만 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식민지에서 행한 스페인인들의 해방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두셀은 진일보한 이성을 지닌 이들 정복자들의 반이성적인 폭력과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서양에 의해 주도된 근대의 신화화를 꼬집고, 이성의 물신화를 비판한다.

이 책에서 두셀은 식민화 역사의 진실을 통해 근대의 이성을 탈신화하는 한편, 1492년 이전의 역사적 기록물을 추적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중국과 이슬람의 세계지도를 보여주면서 유럽이 이전까지는 세계의 중심이 아닌 하나의 지역, 그것도 변방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그리고 현재 아

메리카 대륙의 존재하는 여러 문명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의 이성은 수많은 이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런 해석학적인 발상의 전환은 1492년과 이후 일련의 사건이 하나의 텍스트임을 인식하는 데 있다. 서구의 발견의 기록들은 타자를 ‘창조’해 나가면서 비서구/서구, 동양/서양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타자화 과정을 비판한 후, 셋째 장에서는 타자의 관점에서 서술을 보여준다. 에르난 코르테스의 아스테카 정복도 사실 서구에게는 다른 제국을 무너뜨린 첫번째 경험이었다. 이에 대해, 두셀은 무너진 아스테카 문명의 발전 혹은 우월성을 논하는 대신, 그 문명이 다른 형태의 이성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타자의 ‘다른’ 이성은 침략이 완전한 형태의 정복과 복종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저항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셋째 장의 끝에서 두셀은 옥타비오 파스가 아스테카인들의 인신공양 제의와 희생의식이 현대의 멕시코까지 이어지며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파스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서구의 근대와 근대화 자체가 피라미드의 인신 공양 제의에 다름 아니며, 그 희생자들은 1492년 이후의 아메리카의 식민화된 민중들이라는 점이다. 즉, 두셀은 현재의 구조화된 국가적 문제가 전지구적인 근대화의 기획과 맞물려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럽, 서구화, 근대화, 후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타자들을 근대의 다른 얼굴에 비유한다. 1492년 이후 인디오, 노예 출신의 아프리카인들, 메스티소, 크리오요, 농민들, 노동자 등 역사적 주체들을 열거하면서, 그람시가 주창했던 자본에 의해 소외된 이들의 역사적 불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단순히 역사의 희생자를 넘어서 다른 근대를 만들어 나가는 가능성의 주체라는 것이 두셀의 주장이다.

『1492년. 타자의 은닉』은 탈식민주의에 대한 입문서이다. 우선, 서구 근대 역사와 식민화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역사적 타자의 형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과정을 보여주며, 그것이 결국 근대의 신화와 결부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근대의 신화를 세계체제론의 방법론과 연결시켜서 구 중심주의와 근대화가 거시 역사에서 한시적임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타자의 ‘발견’이나, 좀 더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만남’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은닉’되었던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이 곧 한국어로도 번역된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지만, 학문영역 역시 식민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 아이러니하게도 탈식민주의 이론들조차 영미권 이론을 위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주변부의 시각에서 중심과 주변의 재구성과 이론화를 시도한, ‘탈식민주의적인’ 탈식민주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거나, 우리 사회의 타자화에 대한 성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